

# 김오진 1차관, 9일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

## -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한-체코 협력 강화 방안 논의 -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9일(목) 오후 서울에서 토마스 코페치니(Tomas Kopečný)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(Governmental Envoy for Ukraine)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를 위하여 동아시아를 방문(일본-한국-대만 순 방문) 중인 코페치니 특사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, 이반 얀차렉(Ivan Jancarek) 주한 체코 대사도 동석하였다.
- 김 차관은 “한국에서 고위급의 현지 방문\* 등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  - \* 윤석열 대통령 키우 방문(7.15) 및 재건협력대표단(단장: 국토부 장관) 키우 방문(9.13.~9.14) 등
  - “국제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니, 한-체코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, 양국이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”는 뜻을 밝혔다.
- 코페치니 특사는 “체코는 우-러 전쟁 개시 이후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다수 수용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, 약 140여 개의 체코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”면서, “체코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”라고 소개하였다.
  - 또한, “체코 정부가 관심을 가진 5대 분야(주거·교통·보건·에너지·수자원관리)에서 한국 기업이 우수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면서, “5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”라고 화답하였다.
- 아울러, 김 차관은 “체코 내 고속철도 건설, 신규 원전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,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함께 모색하자”라고 제안하였고,
  - 코페치니 특사는 “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”라고 답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“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국토부-주한 체코대사관 간 소통채널 마련을 제안하였고, 안차렉 대사도 이에 동의하였다.
  
- 한편,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과 코페치니 특사는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건설협회(한국)-상공회의소(체코) 간 화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2023. 11. 9.  
국토교통부 대변인